

기업 63%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반대”

대한상의, 104개 상장사 조사

문제점 1위 ‘자사주 활용 불가’

응답 절반 이상 ‘취득규모 축소’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절반 이상의 자기주식 보유 상장사는 해당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중립적 입장’은 22.8%,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응답 기업들은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으로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약 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을 들었다.

또한 기업의 60.6%가 ‘취득 계획이 없다’고 답해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자기주식 취득 유인은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취득 계획 있다’는 14.4%, ‘취득 검토 중’은 25.0%로 나타났다.

취득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39.4%의 기업 중에서도 향후 취득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56.2%로 절반을 넘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기업은 약 83%로 집계됐다.

반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36.5%, 오히려 자기주식 취득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7.3%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가 다수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포인트 높았다.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66%포인트, 16.4-47.91%포인트 높아 주가부양 효과가 확인됐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응답기업의 79.8%는 ‘신규취득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 공정화’에 동의한다고 밝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대안으로 제기됐다.

현재 신주발행 시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을 허용한다. 자기주식 처분도 이에 준해 제

3자에 대한 처분을 인정하자는 취지다.

해의 주요국 가운데 자기주식 보유규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미국·영국·일본의 시총 상위 30위 기업 중 8개 사(64.4%)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으로 비교한 경우에도 미국(24.54%), 일본(5.43%), 영국(4.98%)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유 비중(2.95%)이 적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가상융합산업대전 ‘활짝’ 12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가상 융합 산업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소상공인 체감경기 최근 5년내 최고치

소비쿠폰·상생페이백 등

소비진작 프로그램 효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기 동향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이 지난달 실제 체감하고 있는 경기 상황을 수치화한 체감 경기동향지수(체감

BSI)가 전달 대비 25 포인트(p) 올라 79.1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체감BSI 중 가장 높았다.

중기부는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정부의 소비 진작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8-10월 사이에 BSI가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상승폭을 업종별로는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12.5포인트), 개인 서비스업(9.5포인트), 수리업(7.2포인트)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울산(15.2포인트), 세종(11.4포인트), 전북(8.6포인트) 등이 높았다.

이어 소상공인이 다음 달의 경기 전망을 예측한 ‘전망BSI’도 이달 대비 3.9포인트 오른 90.7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포인트), 음식점업(10.3포인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포인트), 지역별로는 울산(19.8포인트), 인천(14.0포인트), 대구(9.7포인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하반기에 추진한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나타난 것 같다”며 “하반기 릴레이 소비 촉진 행사 등 예정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면역항암제·비만약, 올해 의약품 시장 지배

키트루다·오젠폍 매출 70조 넘어

올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면역항암제와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약간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앤드설리번 등을 인용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전했다.

올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한 의약품은 MSD(머크)가 개발한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로 매출 300억달러(약 44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촉발하는 방식의 항암제다.

그 뒤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오젠폍’(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과 ‘마운자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 매출이 각각 220억달러(약 32조원), 200억달러(약 29조원)로 상위권에 오를 전망이다. 이들 치료제는 각각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개발했다.

오젠폍과 마운자로 외에 위고비, 젤바운드 등 치료제까지 합치면 세마글루타이드와 티르제파타이드 합산 매출은 700억달러(약 102조5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들 GLP-1 계열 의약품이 체중 감량에 이어 심혈관, 신장질환 등으로 적응증을 확장하며 호실적을 냈다고 분석했다.

유산 기부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7.8%를 차지했다.

“사후 재산 기부하겠다” 22% 그쳐 ‘역대 최저’

사후에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비중이 22%로 조사돼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사회조사(조사 기간 5월 14-29일)에서 ‘향후 여건이 허락된다면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할 의사가 있는가’는 문항에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2.2%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2명꼴이다.

2년 전 조사(23.2%)보다 1.0%포인트(p) 떨어지며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유산 기부 의사 ‘있음’ 비중은 2015년 34.5%였지만 2019년 26.7%로 줄었고 2년·4년 주기 조사마다 계속 감소세다.

미래 불확실성 증가와 노후 불안, 사회 신뢰도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산 기부 의사는 10대(13.19세)에서 29.0%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에서는 15.5%로 가장 낮았다. 20대는 25.7%, 30대는 21.2%, 40대는 25.5%, 50대는 26.3%로 각각 조사됐다.

유산 기부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7.8%를 차지했다.

지금 현재 기부 의사는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를 묻는 문항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2021년(37.2%)에서 2023년(38.8%) 늘어난 데 이어 증가세가 유지됐다. 다만 2015년(45.2%)에 비해서는 5.6%p 낮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시내 지역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지방 지사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시내 지역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지방 지사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시내 지역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